



# 마이크로폰에 담는 매크로 비전

비에스이 박진수 대표

나이에 비해 유달리 꼳꼳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가 ROTC 출신의 장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창업시절부터 십수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품고 있는 기업성패의 유일한 해답, 그것은 바로 기술개발이다. 그 믿음은 아직도 가슴속에서 꼳꼳이 그를 지탱하고 있다.



**창**업 후 차곡차곡 쌓아온 기술력으로 마침내 세계 수위의 기업으로 우뚝 선 비에스이(대표 박진수). 주력제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핵심부품인 ECM이다. ECM은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마이크로폰의 일종. 이 제품만으로 비에스이는 국내시장 90%와 세계시장 32%를 점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폰 하나로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1500억의 매출을 기대하며 세계시장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 한 길에 매진한 지난 세월

비에스이는 1987년 음향기기 부품종합메이커를 표방하며 창립되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기업들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국내 음향기기 제조업체들은 핵심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 단순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80년대 마이크로폰 시장에서 일본의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일본을 한번 밀어내 보자는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뭘 믿고 그런 생각을 했나구요? 믿을건 기술개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불모지에 가까운 척박한 토양 위에서 성공을 꽃피울 작지만 든든한 씨앗이 되었다.

외국의 핵심기술들을 하나하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1997년에는 국내 최초로 음향기기 연구소를 설립,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그간의 노력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이미 예견한 90년대 후반 휴대폰 특수에 힘입어 비에스이는 세계 시장에서 고공비행을 시작하였다.

박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년 매출액의 20%이상을 R&D로 재투자, 연구개발인력이 직원의 50%에 달하는 연구개발 중심 기업을 만들어냈다. 십수년간 한우물만 파온 것에 대한 보상일까.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박대표는 대통령표창만도 두 번이나 수상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벤처기업대상 석탑훈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방대하게 사업을 벌이기보다 하나를 깊이 있고 내실 있게 하는 알찬 기업을 만들 생각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녹아있는 비에스이의 제품은 현재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에 무검사품목으로 공급되고 있다.

### 모바일폰 혁신클러스터 건설이 꿈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박대표는 스스로를 ‘모자란 경영인’이라고 판단, 뒤늦게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그것도 모자라 경영관련 강연 프로그램이면 시간을 쪼개 쫓아다녔다.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R&D에 아낌없이 투자를 쏟아 부은 것처럼 자신에 대한 투자에도 매진한 것이다. 사내복지 확대와 제안제도 실시 등 벤처업계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에스이의 경영혁신 사례는 박대표가 그간 힘쓴 자기경영의 산물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스스로를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더욱 열심히 저와 보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의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박대표는 이제 또다른 꿈을 꾸고 있다.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세계적인 모바일폰 단지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부품업체들이 모여 모바일폰 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단지 안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고객이 찾아오는 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차별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제 비즈니스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모바일폰 클러스터. 다들 해외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외국의 자본과 기업들까지 끌어들이 복안을 마련한 박대표의 경영능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받을 때마다 능력을 평가받았다기보다는 더 연구, 발전하라는 숙제로 받아들인다고. 집념으로 한 길을 걸어오며 세계시장을 석권한 농익은 벤처인 박진수 대표. 이제 그에게는 모바일폰 혁신클러스터 건설이라는 제 2라운드의 공이 울렸다.

### 시테크 전도사 박진수 대표

박대표는 틈날 때마다 주위사람들에게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한평생 인간에게 주어진 70만 시간. 그 중 25만 시간은 잠들어 있으니 깨어있는 시간만이라도 의미있게 보내자는게 박대표의 시테크 핵심이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게 돼 결국 선순환된다는 것이다. 그런 멋진 삶을 사는 벤처인이 되길 박대표는 당부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04년을 말끔히 정리하고 그가 말하는 멋있는 벤처인으로 내년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